

VII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한국경제는 고도 성장 시대의 꿈에서 깨어나야 하며, 경쟁과 개방 정책을 실행에 옮겨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

■ 한국 경제에 대한 밖의 충고

- 고도성장 시대 개발방식의 획기적 전환 필요
    -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위기감이 팽배함
      -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늘려 잡음
      - 금융연구원과 재정경제원은 제2의 멕시코 가능성에 대한 공방을 벌임
    - 해외 석학들은, 위기는 아니나 고도성장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충고함
      -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직성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관료성도 불식되어야 함
      - 정부의 규제완화나 금융자유화를 통해 기업활력을 촉진해야 함
      - 경제력 집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
    - 政府는 밖으로부터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경쟁과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함
- (「중앙일보」, 97. 4. 7)

자동차산업의 돌파구는 수출 쪽에서 찾아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업계의 전략 수정이 시급함

■ 자동차 조업단축 심상찮다

- 자동차산업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업계의 전략 수정 시급
  - 자동차 업계의 조업단축이 심각함
    - 현대자동차는 조업단축을 무기한 연장함
    - 기아자동차도 일부 차종의 완성차 생산을 줄이기 시작함
  - 이는 곧 협력업체의 조업단축으로 이어져 해당업체의 경영난과 소속 근로자의 소득 감소는 물론, 지역경제의 위축, 나아가 불황의 골을 깊게 할 우려가 있음
  - 자동차 산업의 돌파구는 수출 쪽에서 찾아야 함
    - 업계 스스로 나열식 시설경쟁에서 벗어나 생산체제

를 전문화하고, 시장 전략을 재정비해야 함  
(「동아일보」, 97. 4. 14)

부패방지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, 정부는 규제철폐를 서둘러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함

■ 가시화되는 부패라운드

- 부패방지 라운드, 올해 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
  -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라운드가 올해 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
  - '97년 5월 26일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'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형사처벌 기준'에 관한 세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
  - 부패방지 라운드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임
  - 상당수 우리 기업들은 뇌물 제공의 거래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임
  - '96년 10월 말 아시안 월스트리트지의 조사에 따르면, 한국의 부패 정도는 조사대상 54개국 중 28위임
  - OECD 회원국에 걸맞게 우리 경제의 질서와 거래관행이 고쳐져야 함
  - 정부는 규제철폐를 서둘러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함  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4. 14)

벤처 기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, 규제개혁을 통한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

■ 벤처기업과 규제개혁

-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임
  -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업환경과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
  -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통한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
  -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단기적 자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유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임
  - 벤처기업은 미국과 같이 규제가 별로 없는 나라에서 성공하고 있음  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4. 15)